# 리브스메드 491000 · KOSDAQ

## 다빈치에 도전하는 손목, 다음 무대는 미국

리브스메드는 복강경 수술기구 끝을 사람 손목처럼 최대 90°까지 꺾이게 만든 다관절 기술로, 고가의 수술로봇이 하던 움직임을 손에 쥐는 기구로 옮겼다. 매출은 2023년 172.7억 원에서 2025년 511.9억 원으로 2년 만에 3배가 됐다. 이제 무대는 세계 최대 의료기기 시장 미국, 그리고 자체 수술로봇 STARK다. 올해 상반기 적자 확대라는 숙제와 함께 성장 경로를 점검한다.

POINT 01

### 다음 무대는 미국

아티센셜·아티씰은 미국 FDA·일본 PMDA·유럽 CE 허가를 이미 확보했고, 미국 병원구매대행(GPO) 헬스트러스트와 공급 계약도 맺었다. 지금 매출의 93%가 국내라는 건, 세계 최대 시장 미국에서의 성장이 이제 막 시작 단계라는 뜻이다

POINT 02

### 로봇의 손목을 기구 하나로

30억 원대 수술로봇이 하던 관절 움직임을 수십만 원대 기구로 구현했다. 로봇이 없는 병원까지 시장이 되면서 매출이 2년 만에 3배(172.7억→511.9억 원)로 뛰었고, 이미 72개국에 공급 중이다

POINT 03

### 다빈치와 같은 판에 선다, 수술로봇 STARK

7월 미국 세계로봇수술학회(SRS 2026)에서 처음 공개해 존스홉킨스 등 미국 주요 의료기관의 관심을 받았고, 8월 식약처 품목허가를 신청했다. 회사는 2026년 말 국내 허가, 2027년 미국 FDA 허가를 목표로 한다

POINT 04

### 수술 한 건을 통째로

다관절 기구·혈관봉합기에 이어 스테이플러(아티스테이플러)와 카메라(리브스캠)까지 국내 인증을 받았다. 수술에 쓰이는 기구를 모두 자사 제품으로 채우면 환자 한 명당 매출이 커지는 구조다

**체크포인트**

- STARK 식약처 허가(2026년 말 목표)와 미국 FDA 허가(2027년 목표) 일정
- 미국 등 해외 매출 확대 속도(현재 국내 비중 93%)
- 매출총이익률 하락의 원인과 회복 여부
- 판관비 증가가 계속되는지

| 투자의견 | Not Rated |
|---|---|
| 목표주가 | 제시하지 않음 |

**최근 실적 (억 원)**

| | |
|---|---|
| 매출액 (1H26) | 227.7 |
| 매출총이익률 (1H26) | 43.4% |
| 영업이익 (1H26) | -205.6 |

**작성 정보**

| | |
|---|---|
| 작성 | 에스투스퀘어 리서치팀 |
| 보유 여부 | 보유 없음 |
| 작성일 | 2026.08.1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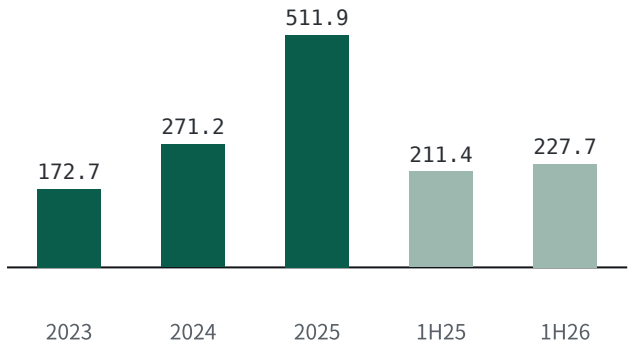
자료: 리브스메드 2024년 연결감사보고서, 2025년 사업보고서, 2026년 반기보고서(DART), 머니투데이(2026.3.25), 데일리팜(2026.7.27), 스마트투데이(2026.8.6), 딜사이트(2026.8.10)

## 01 실적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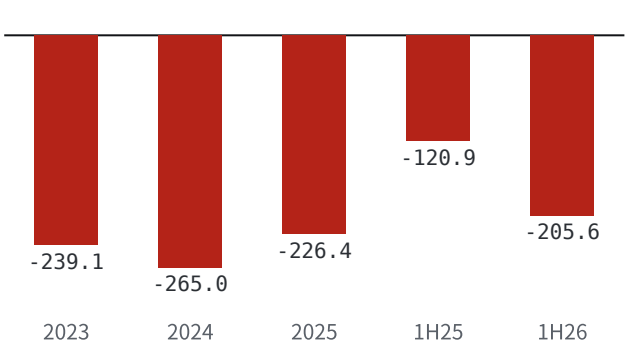
| (억 원) | 2023 | 2024 | 2025 | 1H25 | 1H26 |
|---|---|---|---|---|---|
| **매출액** | 172.7 | 271.2 | 511.9 | 211.4 | 227.7 |
| **매출총이익률** | 54.9% | 53.6% | 57.7% | 61.3% | 43.4% |
| **영업이익** | -239.1 | -265.0 | -226.4 | -120.9 | -205.6 |
| **영업이익률** | -138.5% | -97.7% | -44.2% | -57.2% | -90.3% |
| **당기순이익** | -570.2 | -255.8 | -228.7 | -132.4 | -169.1 |

자료: 리브스메드 2024년 연결감사보고서(2025.3.26), 2025년 사업보고서(2026.3.23), 2026년 반기보고서(2026.8.14)

**매출액** (억 원)




**영업이익** (억 원)




연한 막대는 분기·누적 실적. 빨간색은 손실

## 02 제품과 기술

- 복강경 수술은 배에 작은 구멍을 내고 긴 기구를 넣어 하는 수술. 기존 기구는 끝이 곧게 고정돼 깊고 좁은 부위에서 각도를 만들기 어려움
- 아티센셜은 기구 끝에 관절을 넣어 상하좌우 최대 90°까지 꺾이게 만든 제품. 로봇 수술의 관절 자유도를 수동 기구로 구현해 로봇이 없는 병원에도 공급 가능
- 아티씰은 같은 관절 기술에 자체 고주파(RF) 봉합 기능을 더한 혈관 봉합기구. 국내(2023), 미국 FDA·일본 PMDA(2024), 유럽 CE MDR(2025) 허가 완료
- STARK는 소형 모듈형 복강경 수술로봇. 로봇의 '눈'은 3D4K 카메라 LivsCam, 로봇 팔 끝의 기구는 자사 다관절 기구를 쓰는 구조

## 03 미래 비전: 미국, 그리고 로봇

- 글로벌 수술로봇 시장은 인튜이티브서지컬의 다빈치가 오랫동안 주도해 왔고, 메드트로닉 등 대형 의료기기 기업들이 뒤따라 뛰어들고 있음. 리브스메드는 로봇 팔이 아니라 기구 끝 관절에서 출발해, 같은 시장에 다른 길로 들어가는 셈
- STARK는 로봇의 눈(3D4K 카메라 LivsCam)과 손(다관절 기구)을 모두 자체 기술로 채운 수직계열화 모델. 로봇이 병원에 깔릴수록 소모품인 기구 매출이 함께 늘어나는, 글로벌 수술로봇 기업들이 검증한 수익 구조를 노림
- 미국은 기존 제품의 FDA 허가와 GPO 계약으로 판매 기반을 갖췄고, 아티스테이플러·리브스캠도 FDA 신청을 준비 중. 미국 매출이 의미 있게 잡히기 시작하면 국내 93%에 쏠린 매출 구조가 바뀌는 전환점이 됨
- 용인에 수술로봇 제조기지를 구축하며 글로벌 생산 거점을 준비하고 있음
- 다만 회사와 증권가가 제시한 일정(2026년 말 국내 허가, 2027년 FDA 허가)이 지연되면 기대가 실적으로 바뀌는 시점도 늦어짐. 허가 일정이 가장 중요한 체크포인트

## 04 숫자로 본 리브스메드

- 매출은 2023년 172.7억 원에서 2024년 271.2억 원(+57%), 2025년 511.9억 원(+89%)으로 2년 만에 약 3배
- 영업손실은 2023년 -239.1억 원, 2024년 -265.0억 원, 2025년 -226.4억 원으로 매출이 늘면서 적자율은 -138%에서 -44%까지 줄었음. 그런데 2026년 상반기에 다시 -90%로 커짐
- 2023년 순손실 -570.2억 원은 상환전환우선주 관련 금융비용(336.2억 원) 영향이 커서 영업 실적과 따로 봐야 함.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되면서 2024년 말 자본이 -1,171억 원에서 +396억 원으로 돌아섬
- 2025년 순손실은 -228.7억 원으로 영업손실(-226.4억 원)과 비슷한 수준. 우선주 관련 금융비용이 사라지면서 순손실이 영업 실적을 그대로 따라가는 구조가 됨
- 매출총이익률은 2023년 54.9%, 2024년 53.6%, 2025년 57.7%로 50%대 중후반을 지켜 왔는데, 2026년 상반기에 43.4%로 크게 떨어짐. 이번 반기 적자 확대의 핵심 변수
- 2026년 2분기 매출 125.1억 원(+9.6%), 영업손실 -121.9억 원(전년 동기 -54.3억 원)
- 매출의 93%가 국내. 수출은 상반기 16.1억 원으로 해외 확대가 아직 초기 단계
- 5% 이상 매출 비중 고객 2곳이 전체 매출의 34.9%를 차지
- 자본 1,639억 원, 부채 240억 원으로 당장의 재무 부담은 크지 않음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는 에스투스퀘어가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하였으며, 대가를 받지 않고 무료로 배포합니다.
- 본 자료는 리브스메드로부터 작성 의뢰나 대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 작성일 현재 작성자와 그 가족, 당사는 리브스메드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료 공표 후 30일 동안 해당 종목을 매매하지 않습니다.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정확성과 완전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본 자료는 투자의견(Not Rated)과 목표주가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당사의 허락 없이 복제·배포할 수 없습니다.